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4차)

| | | | |
|--------------|--|------|------------|
| 개최일시 | 2021.05.24(월) 17:00~18:50 | 회의장소 | 대학원별관 윤세영홀 |
| 참석자 (12명) | 강은솔(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김영석(관리처장), 노아정(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 박귀천(학생처장), 박수정(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사범대학 공동대표), 박인휘(총무처장), 배소현(예산팀장), 신하윤(교무처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정도연(경영대학 공동대표), 정제영(기획처장), 조은진(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 | | |
| 불참자 (1명) | 이희주(대학원 학생회장) | | |
| 안건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관련 논의 2. 학생 요구안 관련 논의 | | |
| 내용 | <p>■ 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교무처장)이 회의 개회에 앞서 회의 녹음 절차 및 원칙을 안내하고 금일 회의 녹음에 대하여 참석위원들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다. 참석위원 전원이 녹음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의 녹음을 개시하다. - 예산팀장이 회의록은 회의 개회일 이후 10일 이내로 공개하여야 함을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고 본인 발언에 한해 수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다. - 위원장이 총 13명의 위원 중 12명으로 과반수가 참석하여 회의 개최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회하다. <p>■ 회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외부위원은 등심위 구조 관련 안건 논의 후 이석할 예정이며, 학생처장은 수업일정으로 인해 오후 7시경 이석할 예정임을 안내하다. 이어 학생위원에게 등심위 구조 관련 안건에 대해 발언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 |

1.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관련 논의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미리 전달한 자료 중 4번 '이화의 모든 구성원 등심위 참관 허용' 안건에 대해 강조하며, 단과대학별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총인원을 제한하여 참관을 허용할 것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등심위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참관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2014년 1차 등심위 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바 있으며, 2021년부터는 학생위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회의 녹음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또한, 등심위 참관 요청의 실질적 취지가 회의내용의 공개에 있으므로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등심위는 학생들이 지불한 등록금에 대한 의결이므로 등심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어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하다. 또한, 참관 시에는 구어적 표현을 직접 접할 수 있으나, 회의록의 경우 성세된 글로 보는 것이므로 자이가 있다고 발언하녀 나시 요청하나.

- 기획처장이 본교의 회의 운영 방식이 타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설명하며, 회의록을 통해 회의 내용이 상세히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는 원칙적으로 참관이 불가한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현재 등심위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참관을 불허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녹취를 활용한 회의록 작성은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학생위원 측에서도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본 후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을 시 기획처장의 발언대로 녹취를 통한 회의록 작성에 더 중점을 두길 바란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학생위원이 안건들에 대해 꾸준히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이유를 재고해달라는 의미에서 3번 요구안 '위원 중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일주일 이내 회의 개최 진행' 요구안을 강조하다.

- 기획처장이 회의 소집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지만, 현재도 학생위원의 개최 요청 시 충분히 협의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덧붙여 3번 요구안의 회의

소집 기준과 2번 요구안의 회의 개최의 기준이 서로 상충됨을 지적하고, 학생 위원 측에 요구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구조 관련 추가적인 질의가 없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등심위 구조 관련 논의를 마무리한 후 외부위원의 이석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외부위원이 퇴장하다.

2. 학생 요구안 관련 논의

- 위원장이 학생위원에게 학생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학교위원에게 지난 등심위 회의에서 전달한 학생 요구안에 대해 답변을 준비한 것이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1번 요구안 '등록금 인하 및 반환'에 대해 답변하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본교의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부 장학금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였음을 설명하다. 또한, 수강 가능 학점 추가 3학점 부여, 교과목의 특성 및 학생·교수자의 의견에 따른 유연한 수업방식(대면/비대면/혼합) 운영, 사이버캠퍼스 등 온라인 학습 인프라 개선, 교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 외부인 출입통제 등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추가 3학점 부여로 혜택을 받은 학생들의 규모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상당히 많은 학생이 추가 학점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수강 가능학점이 증가한 만큼 분반 증가 또는 교원 확충이 이루어졌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과거에도 수강신청 시 일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수강신청 시스템 개선 및 분반 조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답변하다.

- 교무처장이 추가 3학점 부여 이후에 평균 수강학점이 증가한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부연하다. 또한, 분반 추가 등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강신청 대기순번제 및 취소지연제 시행 등을

통해 시스템적인 부분의 개선도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다.

- 학생처장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는 향상되었음을 부연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수강학점 3학점 추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고 답변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에 추가 3학점 부여에 대한 설문이 있었는지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특정 사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학생처에서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하다. 전년도 수업 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가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추가 3학점 부여 이전에도 수강신청이 어려웠던 경영대의 경우 추가 3학점 부여로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제기하다.

- 기획처장이 경영대 수업의 수강신청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교무 회의에서도 공유한 바 있으며, 학교도 해당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수업의 분반과 정원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수강 가능 학점으로 3학점이 추가로 부여되어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 많았다고 언급하다. 수강 가능 학점 추가 외에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수강 가능 학점 3학점 추가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고 발언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이버캠퍼스 이용률의 증가에 따른 사이트의 마비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들며 추가 3학점 부여보다는 등록금 반환이 모든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닐지 의견을 제시하다.

- 기획처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비대면/혼합수업 등 다양한 수업형태로 정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온라인 교육 인프라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

행할 것이라고 답하다.

- 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가 교수자가 강의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이전에 올렸던 강의를 그대로 업로드하는 등의 경우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제재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현재 교무처에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숙고하고 있다고 부연하다.

- 총무처장이 학생위원이 언급한 내용은 타학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나, 본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다.

- 교무처장이 이와 관련하여 비대면 수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활용하여 줄 것을 제안하며, 비대면 수업과 관련하여 학과나 단과대학 차원에서 개최하는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첨언하다.

- 기획처장이 2번 요구안인 '고시반 특별예산 정규화'에 대해 학생위원이 간략히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고시반 관련 설문조사 진행 결과 고시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 설문조사 결과를 추가자료로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시반 특별예산 정규화를 요구안으로 선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지원팀에서 추후 자료를 검토한 후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하여 학생위원의 동의를 구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고시반 운영의 구체적인 보완 방안과 같은 사안은 서면으로 논의하자는 발언에 동의하며, 고시반 예산 관련 논의만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고시반의 예산이 따로 편성되기는 어려운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고시반의 종류별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고 답변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고시반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고시반 예산 확대 요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학교에서는 고시반 지원 시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다. 또한, 고시반 예산 외에도 사범대의 임용고시 지원 등 단과대학 차원의 고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연하며, 구체적인 지원 요청사항을 학생처에 서면으로 전달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

- 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가 고시반 관련 장학금은 재학생에게만 지급되어 휴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가능 여부를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장학금은 등록생에 한해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휴학생에 대해 장학금 형태의 지원은 어렵다고 답변하다. 따라서 휴학생이나 졸업생의 경우 단과대학 동문 및 교직원의 사적 기부를 통한 지원, 비금전적 지원 등 다른 방식을 통한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하다.

- 예산팀장이 인재개발원에서 과거 3년에 걸쳐 기자재 지원 등 고시반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집중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특강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이다.

- 기획처장이 추가적인 의견은 학생처에 서면으로 전달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다.

- 기획처장이 3번 요구안인 '법인 책무성 강화' 요구안에 대해 교육부의 평가지표에 따르면 우리 법인의 법인 책무성은 사립대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하다. 또한, 법인의 자산을 주식상품 형태로 운용할 것을 제안하는 학생 요구안에 대해서는 법인 자산의 운용은 수익률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다.

- 예산팀장이 법인 전입금 확대를 위해 법인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덧붙이다.

- 학생처장이 4번 요구안 '장학금에 투자하는 전체 금액 확대' 요구안과 관련하여 장학금 규모는 한 번 증액할 경우 다시 감액하기는 어려우므로 규모 확대는 신중히 접근하여야 하며, 주어진 자원 내에서 최적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중이라고 답변하다. 또한, 본교의 학생 1인당 교내 장학금액은 서울 주요대학 중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라고 부연하다. 덧붙여, 이화 옴부즈만 장학금, 이화플러스 장학금 등을 통해 소득분위로 가계곤란 정도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단과대학별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장학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단대별 특성화 장학금이 있다고 답변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장학금을 받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단과대학별 장학위원회에서 단과대학 및 학과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답변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단과대학별 특성화 장학금이 없는 경우 학생들이 요구할 경우 특성화 장학금 마련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단과대학별 특성에 따른 장학금은 교외 기탁장학금으로도 운영될 수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가계 곤란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중 단과대학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이화 옴부즈만 장학금, 이화 플러스 장학금 및 각종 활동성 장학금을 예로 들다.

- 기획처장이 5번 '각종 프로그램 및 저장공간 사용' 요구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간략히 전달하다. 구글 드라이브 유료화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글의 구체적인 유료화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하고 구글의 정책에 따라 대응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답변하다. Adobe 프로그램 교외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학과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학과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다. 또한, ZOOM 무제한 계정 요구의 경우, 비용 대비 기대효과와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함을 설명하고, 수업 관련 개설 시에는 해당 교과목 교·강사의 도움으로 온라인 회의 개설이 가능함을 안내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Adobe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복수전 공생도 포함하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과별 수요조사 시 부·복수전공 수요도 고려될 것이라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ZOOM 회의실 사용은 교원의 ZOOM 아이디를 빌리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아이디를 빌리는 개념이 아니라, 교원이 ZOOM 대화방을 개설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교원의 ZOOM 회의실을 이용하는 경우 수업시간과 겹치거나 다른 학생들과 이용시간이 겹치면 사용하지 못하며, 수업 외에 학생 자치 활동에도 ZOOM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을 위해 ZOOM 이용과 관련해 투자를 건의하다.

- 기획처장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투자하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ZOOM 무료 계정을 활용하거나 다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대안이 존재함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다른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경우 여러 문제가 있어 ZOOM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발언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Adobe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5월 말 이후 정보통신처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수요조사 일정상 조사 결과가 1학기에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대면 수업의 경우 학생들이 학교 공간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이 시설이용료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비대면 수업의 경우 학교 공간이 온라인으로 옮겨 온 것으로 생각해줄 것을 제안하며, ZOOM 관련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위원의 발언 취지를 이해한다고 답변한 후, 6번 구안 '코로나 관련 예산안 수립'에 대해 설명하다. 사이버캠퍼스의 경우 서버를 증설하되 무한대로 증설할 수 없으므로 동시접속자 분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다.

- 교무처장이 사이버 캠퍼스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 및 업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기말고사 기간을 대비한 단기적인 조치뿐 아니라 장기적인 대처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하다.

- 기획처장이 중간고사 기간에 발생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전자기기 대여와 관련하여 노트북 100대를 추가 구매하고 노트북 100대를 렌탈하여 추가 공급하였는데 여전히 학생들의 불편함이 존재하는지 학생위원에게 질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정보통신처 문의 결과 추가 구매 이후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현재로서는 보유 수량 확대 이후 관련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 전자기기의 수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나 학생들의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하다.

- 예산팀장이 정보통신처의 보유 수량이 모두 소진된 것이 아니므로 전자기기의 수량이 부족해 대여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기획처장의 발언 중 전자기기의 예시로 아이패드를 언급한 것에 대해 확인차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아이패드가 기본 대여 품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노트북이라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태블릿 기기 대여가 된다면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므로 대여 품목에 태블릿을 추가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향후 수업에서의 활용성과 수요변화를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다음 요구안인 셔틀버스 및 교내 방역 관련 요구안에 대해 관련 처장에게 답변을 요청하다.

- 관리처장이 교내 주요 공간, 공용 공간을 위주로 외부 용역 업체를 통해 매주 정기 방역을 하고 있으나 소독약이 유해할 수 있어 방역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님을 설명하다. 또한, 단과대학별 학생 자치공간 소독을 위한 휴대용 방역기 비치 요구는 소독약 오남용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우려된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학생 자치공간에서 다수가 모이는 경우가 있어 휴대용 방역기 비치를 요구한 것이었음을 설명하다. 덧붙여 학생들이 정기 방역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이나 셔틀버스에 방역 횟수 관

런 체크리스트 표를 부착해둘 것을 제안하다.

- 관리처장이 이에 대해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하고,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미리 요구하면 방역기 대여 및 사전 방역 처리도 가능하다고 답변하다. 필요 시 안전팀으로 연락을 취해주기 바란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대여가 가능한 방역기는 정기 방역에 사용하는 방역기인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정기 방역에 사용하는 소독약품이 아닌 알코올류 소독이라고 답변하다.

- 총무처장이 셔틀버스 경북궁 노선 폐지 및 교내 노선 배차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여론수렴 기간 중 특별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셔틀버스 방역에 대해서는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시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 기획처장이 7번 요구안인 '재학생 전체 실험실습비 공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작년부터 단과대학별로 실험실습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또한, 본교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계열별 등록금 책정 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계열별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수학과, 통계학과, 수학교육과의 경우에도 이에 따라 계열별 등록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사범대학 교육공학과와 경우 인문계열이지만 실습을 근거로 다른 사범대 인문계열 학과보다 등록금이 더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수학과, 통계학과, 수학교육과의 실험실습비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교육공학과는 자연계열로 분류된다고 정정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수학과, 통계학과, 수학교육과의 학생들이 실험실습비의 사용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이는 학과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단과대학 학장, 학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다.

■ 폐회

- 기획처장이 관련 법령이 정한 등심위 본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환기하고, 등심위의 심의 대상은 등록금 책정 및 학교회계의 예·결산 관련 사항에 한하며 학생 요구안은 등심위 심의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다. 따라서 차후부터는 학생 요구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생처를 통해 학교에 전달하고 협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실험실습비 책정 시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 비용이라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전임 총무처장이 셔틀버스 노선을 새롭게 개설할 생각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현 총무처장이 전달받은 바가 있는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신규 노선을 개설하는 것은 아니고 정류장의 위치를 조정하는 변경일 것이라 답변하며,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의견이 있다면 학생처를 통해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예·결산(안)이 부결될 경우 일련의 심의 프로세스가 중단되며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학교의 정상적 운영 및 예산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함을 설명하고, 등심위에서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하다.

- 이상으로 위원장이 4차 등록금심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1년 5월 24일

| 확 인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 | 위원장 | 신하운 | 신하운 | 위 원 | 배소현 | 배소현 |
| | 위 원 | 강은솔 | 강은솔 | 위 원 | 이상은 | 이상은 |
| | 위 원 | 김영석 | 김영석 | 위 원 | 이희주 | 불 참 |
| | 위 원 | 노아정 | 노아정 | 위 원 | 정도연 | 정도연 |
| | 위 원 | 박귀천 | 박귀천 | 위 원 | 정제영 | 정제영 |
| | 위 원 | 박수정 | 박수정 | 위 원 | 조은진 | 조은진 |
| | 위 원 | 박인휘 | 박인휘 | | | |
| 작성 자 | 사범대학 공동대표 김 다 정 김다정 | | | | | |